

NBA, 농구화 색상 제한 철폐

NBA가 2018-2019시즌부터 선수들의 농구화 색상 제한을 없앴다.

최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창설 이래 NBA는 선수들이 신을 수 있는 농구화 색상을 제한해왔다. 코트에 나서는 선수의 절반 이상은 검은색 혹은 흰색 농구화를 신어야 했다. 소속팀을 상징하는 색상의 농구화를 신을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이었다. 이마저도 홈과 원정에 따라 제한받았다.

이제는 모든 규정이 사라진다. 오는 시즌부터 NBA 선수들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농구화를 마음껏 신고 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스턴의 선수들은 전원이 초록색 농구화를 신고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상업적인 면과 관련이 큰 변화다. 지난 시즌부터 나이키가 유니폼 공급사로 바뀌면서 NBA는 유니폼 색상 규정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전까지 NBA는 홈 팀이 흰색 혹은 밝은 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2017-2018시즌부터는 홈 팀이 원하는 유니폼 색상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시카고 불스는 과거 원정 유니폼으로 사용하던 전통의 붉은색 유니폼을 지난 시즌부터는 홈 유니폼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유니폼에 이어 신발까지 색상 규



▲ LA 클리퍼스 포워드 몬트레즐 헤럴은 클리퍼스 팀 상징색인 파랑색과 빨간색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했다. 이제는 누구나 제한 없이 원하는 색상의 농구화를 신고 뛸 수 있다. © LA 클리퍼스

정이 사라지면서 코트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 팬들은 선수의 특성을 보다 손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유니폼, 신발 등의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타플레이어들도 다양한 색의 시그니처 슈즈를 제작하고 보다 편하게 경기에서 직접 신을 수 있어 여러 모로 이득이다. 신발 색상 규정을 통해 NBA가 황금알을 낳는 리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필라델피아, 선발 보강 위해 류현진 염두에 뒀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 행사를 앞두고 있는 류현진(31·LA 다저스·사진)이 서서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선발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류현진에 관심을 보일 공산이 큰 가운데 필라델피아도 그 후보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전망에 대해 “브라이스 하퍼와 매니 마차도라는 두 명의 엘리트 야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면서 “다른 선수들도 염두에 뒀다. FA 좌완들인 패트릭 코빈, J.A 험, 델러스 카이클, 그리고 류현진이다.”라며 좌완 보강에 나설 것

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13일 'OSEN'에 따르면 미 '야후스포츠'는 11일 필라델피아의 내년 선발 로테이션 구상을 분석했다. 리빌딩을 마치고 이제는 챔피언을 향해 달릴 시기가 된 필라델피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큰 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스트시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발진이 필요하고, 아론 놀라와 제이크 아리에타의 뒤를 받칠 투수를 FA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망의 골자다.

현재 필라델피아의 선발진은 놀라와 아리에타, 빈스 벨라스케스, 잭 에플린, 닉 피베타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1-2선발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3선발부터는 '우승권 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이다. '야후스포츠' 또한 피베타의 불펜 전환을 점치면서 특히 필라델피아가 선발을 보강할 경우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피베타가 불펜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야후스포츠'는 필라델피아의 FA 시

실제 놀라와 아리에타는 모두 우완이다. 필라델피아 선발진에 뛰어난 좌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포스트시즌과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는 좌우 균형도 중요하다. 코빈, 카이클은 현재 류현진보다 평가가 앞서 있는 선수들. 그러나 그만큼 만만치 않은 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험은 내년에 만 37세가 되는 베테랑으로 장기적 자원은 아니다.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나이를 갖춘 류현진이 필라델피아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류현진을 주목하는 목소리는 처음이 아니다. 역시 선발 로테이션 재정비가 필요한 토론토에서도 류현진을 후보로 뒀다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초대형 계약까지는 어렵겠지만, 좋은 몸 상태와 현재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류현진이 팬잡은 틈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부에나파크 선거구 1지역 시의원 후보 버지니아 본 후원모임



부에나파크 시 현시장 버지니아 본 재선을 위한 후원에 초청합니다

부에나파크 한인 여러분!

미주한인이민 생활을 통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 이민자들의 노력은 매우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를 선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더욱 우리의 사업의 번영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실시되는 우편선거와 11월 6일이 선거날입니다. 부에나파크 선거구1지역 시의원에 출마한 버지니아 본(현시장)은 23년간 지역을 봉사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품성과 리더십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모태신앙은 우리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큰 모범과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조출하지만 버지니아 본 후보를 모시고 후원의 밤 '기도회'를 가지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9월 2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추후통보(예약자에게만 통보해 드립니다)

연락처 : 이은숙: (657)239-0597 uskorea@att.net

초청인 : 이은숙 회장 설교 : 이우호 목사

FPPC:1367613



Re-Elect MAYOR
Virginia VAUGHN

BUENA PARK CITY COUNCIL DISTRICT 1

PROVEN LEADERSHIP FOR BUENA PARK